

빌링스턴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밤

IO 1994

특별 부록: 어린이란





표지 설명: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니파이삼서 17:21) 하셨습니다. 1994년 1월 교회의 특별 위성 방송을 통해 총관리 직원들이 오늘날의 어린이들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35쪽 참조(리처드 엠 롬니 사진)

어린이란 표지 설명:
 그림: 덕 브라운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2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엠 러셀 벨라드 장로	8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6
십대 청소년의 지도 데브라 래시	24
태풍! 노리코 오노	30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미셸린 피 그래스리 자매	37
함께 짜여지는 인생 아넬리스 프렌트-펠리스	46

청소년란

결국 그것은 진실이었다 미라 메르세데스 베레스 로만	26
어둠에서 빛으로 : 회개의 은사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	32
아버지, 고맙습니다 즐리양 다이크	44
네 자신을 단련시키거라 칼 피터슨	48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일은 평생의 과업임	25

어린이란

영의 속삭임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2
이야기 : 캐리의 성약 스티븐 아버슨	4
함께 나누는 시간 :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주디 에드워드	8
창의력이 넘치는 친구들	10
심심풀이	12
몰몬경 이야기 : 모로나이 장군이 제레햄나를 패배시킴	13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 -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간 -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하워드 더블류 헌더,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월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리드, 조셉 비 워스리, 린차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편집인: 랭스 디 페네가,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디,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니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기와시카
 성도의 벗: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날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아티스트: 디앤 워커

스케줄 관리: 메리앤 마틴네일
 미술 책임자: 스크트 벤 캠펠

디자인: 새리 쿡
 생산 관리: 레이놀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니퍼 테트와일러, 제인 앤 캠프, 데니스 커비

구독 담당 스텝:
 발행 부수 책임자: 토마스 엘 피터슨

배부 부장: 조이스 헨스
 마케팅 부장: 조이스 헨스, 켄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제343호, 제31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4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의

편집인: 한 상 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심림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4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10/92 번역 승인 -10/92 October 1994 International Magazine of the 번역본. Korean. 94990 322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 선교 도구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는 훌륭한 잡지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은 저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주고 또한 약해질 때 힘을 줍니다. 제가 매달 얻고 있는 지식과 간증이 자라는 것을 느끼며 놀라고 있습니다.

대관장단의 영감어린 메시지와 다른 기사 및 간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엄함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훌륭한 선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복음의 메시지를 친구 가족에게 소개하는 도구로 잡지 한 부를 비회원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면 잡지를 비회원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잡지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활에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에반슨 루이스 데레모스

라모스 와드
 브라질 리오테자네이로 스테이크

..... 가정의 밤을 위해

복음 선교사로서,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 한 부를 받았습니다. 저는 준비비에 아침, 점심 식사 시간 및 공부 시간을 활용하여 잡지를 거의 다 읽습니다. 잡지에 담긴 기사는 선교 사업을 하는 저에게 힘을 주고 또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활동화시키는 좋은 방법을 제공하여 줍니다.

지금 저는 지난달 호들을 모으고 있는데 귀환을 하게 되면 비회원이신 부모님들에게 그것들을 읽도록 권고할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잡지들을 활용하

여 저의 가족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파타니 장로
 파라콰이 아순시온 선교부

..... 영감어린 말씀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거의 1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베 스테른*(독일어 판)은 항상 쉽지만은 않았던 신앙의 길에서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지년간 잡지들을 주어 제가 교회의 역사와 성장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총관리 역원들의 영감어린 말씀들은 저에게 격려가 되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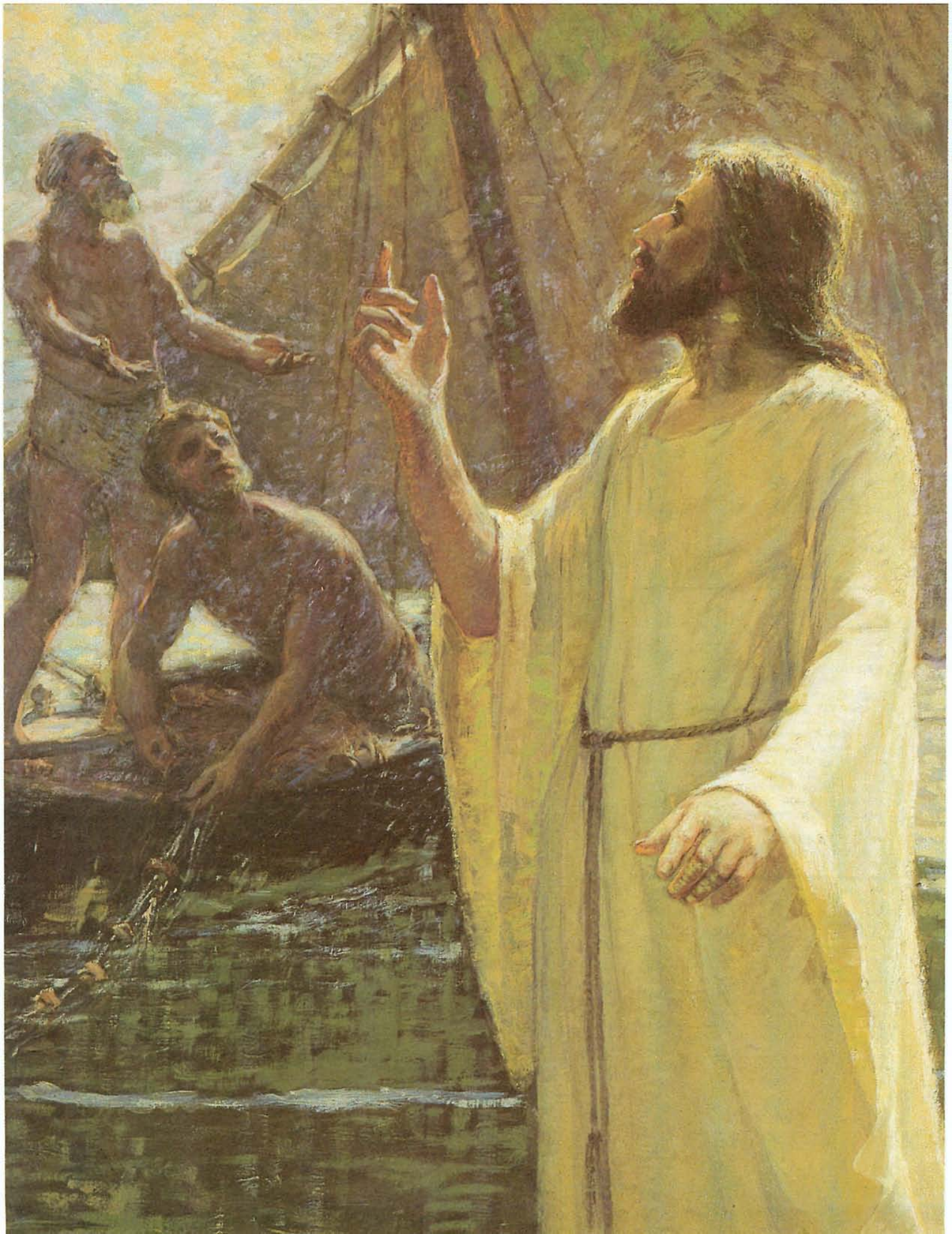
페터 사바츠키
 만하임 와드
 독일 만하임 스테이크

..... 거부할 수 없는 힘

레 프왈(프랑스어 판)이 제 우편함에 도착하면, 저는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잡지에는 읽게 꿈 하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디페시에는 37,000명의 인구가 있지만 교회 지부는 없습니다. 레 프왈은 매주 일요일 파리 스테이크의 루엔 와드에서 다른 회원들을 만날 때까지 제가 영적으로 지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모루아
 프랑스, 디페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저는 몇 개월 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8월호, 교회 소식, 1쪽 참조) 그것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생활하고 그분이 보여 주신 사랑과 소망과 동정심을 본보기로 삼아 따라 행하라는 권고였습니다.

또 회원들에게 서로를 더욱 친절하고, 더욱 공손하며, 더욱 겸손하게 대하고, 더욱 인내심을 갖고 더욱 용서할 수 있게 되도록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더욱 철저하게 생활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차가운 리버티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 있던 예언자 요셉에게 말씀하셨듯이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위선이나 간교함이..."(교리와 성약 121:41~42) 없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리 앞에 차려진 만찬을 마음껏 즐기면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니를 따라 오너라"(마태복음 4: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요한복음 12: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는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의무적인 것입니다.



신상수준 해리 앤더슨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이를 마련해 주신 선한 목자를 따르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의 성역 기간 동안 권유가 되고 목표도 되는 부름을 수차례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마태복음 19:21)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요한복음 12: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권유는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의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견해의 중간에 영원히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언젠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

느냐”(마태복음 16:15) 우리 자신의 구원은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그 대답한 대로 얼마나 실천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라고 계시받은 대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권세에 의해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저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과 똑같이 대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스스로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체되어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게 되기 전에 올바르게 대답을 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이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고한 희생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라는 권유를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결실

**삶의 모든 면에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도록
합시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범과 인도자가 되게 합시다.
육신의 힘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게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유는 부적절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을 따른다 함은 그를 면밀히 주시하거나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여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그의 생각을 지지하고 찬성하며, 그를 하나의 모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 전서 2:21) 그리스도의 교리에 부합되지 않는 가르침이 헛되듯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생활은 잘못된 것이며, 그 고매한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희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파이삼서 27:20~21)

의로움은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족 생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책임을 있으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종교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좀더 구세주를 닮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보이신 위대한 모범을 따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크나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찬송가 가사로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도 더욱...
이길 힘도 더욱
세상 고통 잊고
천국 그리움
왕국에 적합한
성품도 더욱
주님 지닌 축복
더 주옵소서
(찬송가, 60장)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비전을 갖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세주이자 하나님 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신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신대륙에 있던 제자들, 즉 그분에게 배우길 열망했으며 그분이 곧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갈망했던 사람들에게 구세주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

세상은 우리에게 “내 말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려는 사람들로 가

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만이 정정당당하게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선남 선녀의 모범에 대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가장 선량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결점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완전한 모범이나 우리가 따라도 좋을 만큼 결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상이자 “광명한 새벽별”(요한계시록 22:16)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나를 따라라, 내게서 배우라, 내가 한 것을 본대로 행하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주는 떡을 취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율법이요 빛이니,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마태복음 11:29; 16:24; 요한복음 4:13~14; 6:35, 51; 7:37; 13:34; 14:6; 니파이삼서 15:9; 27:21 참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분명하면서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모범이 부재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분명한 모범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범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의 이천 여 년 전에 지상에 한 완전한 분이 사셨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생애 동안 그분은 완벽한 조화로써 전적으로 선한 생활을 이뤄 나갔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복음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복음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희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니파이삼서 27:20)

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모범과 교훈은 온 인류에게 유일 무이하게 확실한 길인 위대한 표준을 제시합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8년, 8쪽)

위대한 표준! 유일 무이하게 확실한 길! 세상의 빛과 생명! 하나님께서 지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했을 두 가지 일을 하도록 하신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무죄한 아들로써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했던 첫번째 임무는 온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구속해, 만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아담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두 번째 위대한 일은 의로운 생활, 즉 친절과 자비와 동정심의 완전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머지 모든 인류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좀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평생토록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시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범과 인도자가 되게 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후에는 그 대답에 따라 좀더 용기를 갖고 이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에 가장 적합하게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린이회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됩시다”(다 함께 노래를, B-66)라고 노래하듯이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육신의 힘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게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분은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하고 죄없는 본보기이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은 종종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요한복음 1:14)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성역을 베푸시고 가르치시며 기도하실 때 구세주의 완전한 삶을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그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자주 그분을 기억하며, 좀더 열심히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향해 솟아오르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생명의 떡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분과 같은 자라야 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범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 생활해야 한다.
2.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요한복음 12:26)라고 말씀하셨다.
3. 그리스도의 지고한 희생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라는 권유를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4.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5.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그분을 알고 기억하며, 더욱 열심히 받들어야 한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위, 선교사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총관리 역원으로
지내는 동안 힝클리
부대관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신적으로 섬세하게 봉사해
왔다.

영혼의 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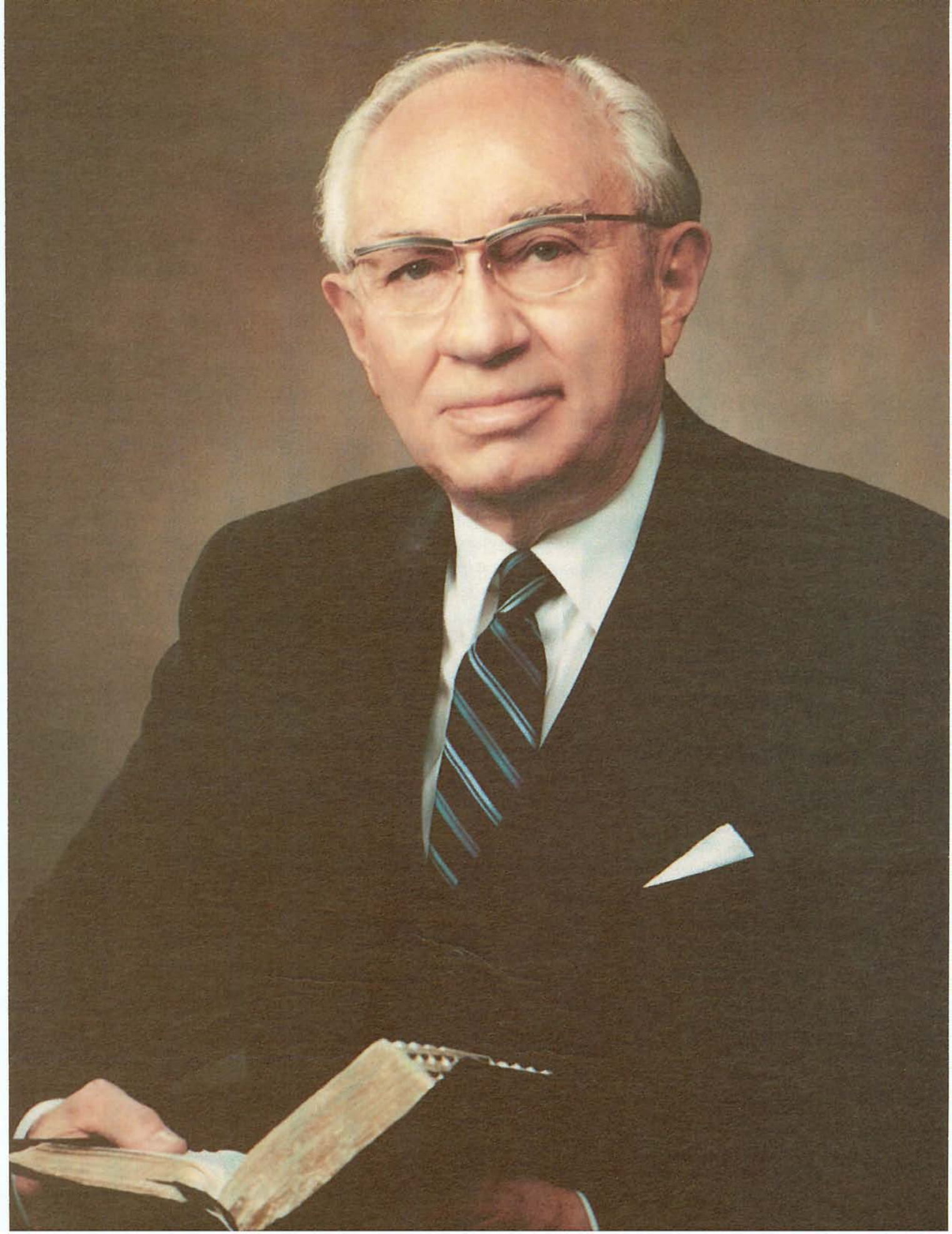
그 날은 전형적인 영국 북서부의 날씨답게 잔뜩 흐려서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그러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에게 1994년 6월 12일의 일요일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나는 프레스톤까지 그와 동행하며 바로 곁에서 그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영국의 프레스톤 성전의 기공식을 감리하기 위해 61년 전에 선교사로 봉사했던 사람으로서 그 곳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선교 사업을 할 당시에 프레스톤에 살았던 거트루드 콜레스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였다. 또한 예전에 함께 일했던 형제 한 명이 군중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힝클리 부대관장은 자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만 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에게 다가갔다. 이제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로버트 피클스를 보고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몸을 구부려 그를 끌어안았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음에도 옛 친구에 대한 그의 감정은 조금도 시들지 않았던 것이다.

언제라도 힝클리 부대관장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자신에 관한 글을 쓴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에게 소중한 사람과 장소 및 자신을 감동시켰던 경험들을 묘사할 것이다.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특성을 보여 주는 선교사 시절의 한 가지 경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젊은 힝클리 장로는 프레스톤에 도착했을 때 격심한 반대에 부딪쳤으며 건강도 몹시 나빴다. 그는 부친에게 자신이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짙막한 답신이 왔다. “사랑하는 고든, 얼마 전에 네가 보낸 편지를 받아 보았다. 단 한 가지만 충고하마. 네 자신을 잊고 일하러 나가거라.”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쥐 채로 무릎 꿇고 주님과 서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1933년 7월의 그 날은 제게 결심의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제



인생에 비쳐 들었고 새로운 기쁨이 제 마음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영국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¹

고든 힝클리가 어렸을 때 그는 가족과 함께 가족 과일 농장에서 여름을 보냈다. 그 시골에서 그와 그의 동생은 밤이면 종종 밖에서 잠을 잤으며 또 그 곳에서 처음에는 북두칠성, 그 다음엔 북극성을 찾아보곤 했다. 고든은 그때 선원들이 수세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즉 지구의 회전에 관계없이 북극성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이 특이한 성좌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게 되었다. “그것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것... 즉 유동적이며 안정되어 있지 않은 하늘에 있는 닻이었습니다.”²

그러한 대상이 고든 비 힝클리의 상상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과 또 그가 젊은 시절에 주님의 사업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에 관해 배운 것은 얼마나 의미 심장한 일인가! 또 영국의 옛 친구들이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인상적인 일인가! 이와 같은 특성들 즉, 비전, 헌신, 타인에 대한 감수성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막중한 책임을 지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훌륭한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의 일면에 불과하다. 그는 쉽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다가도 금새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이며, 인생을 사랑하고 기회를 믿는 사람이며, 또한 성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사람이다. 그는 사람

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녔으며, 머그릇 속에서도 느긋할 수 있는 전형적인 낙천가이다. 그는 종종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는 말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다.

힝클리 부대관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있다는 것에 놀란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끝없이 샘솟는 것 같은 재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놀라울 만큼 깊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중대한 부름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수줍은 주근깨 소년으로 자신을 묘사해 왔다.

그는 연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말 씀할 때, 자신을 재미있게 낮추어 말함으로써 그 즉시 여러 친구를 얻게 됐다. “제가 유럽 선교 본부 사무실로 옮겨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제 첫번째 선교사 동반자가 해 준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라는 지시가 적힌 그 편지를 읽은 후 동반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틀림없이 전세에서 길을 건너는 노부인을 도와 드렸을거예요. 여기서 한 일만 갖고는 이런 지시가 올리가 없거든요.’”³ 힝클리 부대관장은 근 40년 동안 교회 지도자로서 높이 평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던 보통 사람으로 생각한다. 대관장단의 일원으로 13년 간이나 봉사한 지금도 자신을 여전히 “힝클리 형제”라고 부른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충실하게 생

활하는 말일성도의 모습보다 더 설득력있는 복음 책자는 없습니다.”⁴ 라고 말해 왔다. 분명히 그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지만 그의 인생담이야말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는 1910년 6월 23일에 브라이언트 에스와 아다 비트너 힝클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대공황이 절정에 달해 있던 1930년대 초에 그는 유타 대학교를 졸업하고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할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선교사 부름이 주어졌다. 그는 곧 영국으로 떠났다. 고든이 귀환하기 전에 그의 선교부장이었던 십이사도 평의회 의 조셉 에프 메릴 장로는 그에게 귀환한 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게 선교용 책자의 문제점에 관해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교회를 위해 라디오와 홍보 및 선교 책자 위원회의 제작자 겸 서기로 일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 공공 관계 사업의 시초가 되었다. 20년 동안 그는 교회에서 대중 매체의 이용에 앞장서 왔으며 복음 소책자도 여러 권 저술했다.

고든은 1937년 4월 29일에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쾌활한 마조리 페이와 결혼했다. 그들은 다섯 자녀—캐서린(반즈), 리차드 고든, 버지니아(피어스), 클라크 브라이언트 그리고 제인(두들리)—를 두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1958년 4월 6일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을 때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1961년 10월 5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다. 그는 1981년 7



왼쪽: 힝클리 부대관장은 회복된 진리를 포함하여 복음에 관한 많은 소책자를 저술했다. 여기에서 그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에게 회복된 복음 책자를 보여 주고 있다. 오른쪽: 197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왼쪽)와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힝클리 장로. 사진에서 그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에 성임된 순서대로 앉아 있는데 현재도 그 순서대로 대관장단에서 함께 봉사하는 모습의 전조가 되었다.

월 23일부터 1985년 11월 10일까지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했고, 그 후 1994년 5월 30일까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했으며, 지금은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제1보좌로 봉하고 있다. 선임 사도로서는 헌터 대관장 다음인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여덟 명의 교회 대관장과 함께 일해 온 힝클리 부대관장은 현재 살아 있는 총관리 역원 중 가장 오래 봉사하고 있는 분이다. 그가 십이사도로 부름받았



을 때 교회에는 180만 명의 회원과 345개의 스테이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900만 명에 가까운 회원 수 및 약 2,000개의 스테이크 수와 비교된다.

힝클리 부대관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를 비전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는 교회 프로그램의 단순화나 교회 회원의 신앙 강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한다. 참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업의 시현을 보도록 도와주는 데 많은 시간을 바쳤다. “넓은 들을 바라보며 낱알을 심어라.”는 그의 권고는 대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완수해 나가는 그의 생활 방식을 설명해 주는 안내장이다. 그는 선언하듯이 말해 왔다. “저는 여러분이 와드의 한정된 경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이 사업에 대한 더 원대한 시현으로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있으며 우리 모두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⁵ 이것은 그의 모든 말씀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힝클리 부대관장의 대의를 불 줄

이는 기질은 그를 많은 세계로 안내한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족 수가 늘어남에 따라 넓힐 수 있도록 고안된 작은 집을 지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에 부딪혔다. 아들 클라크는 이렇게 말한다. “아빠는 언제나 장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집을 지으실 때 벽에 문을 달 공간을 남겨 두셨어요. 앞으로 개조해서 넓힐 때는 그 문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죠.” 장남 딕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 집은 언제나 가족 수가 늘어난 한두 해 뒤인 것처럼 보였죠. 어머니는 늘 집이나 마당의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셔야 했어요. 여러 해가 지나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갔을 때 어머니는 ‘마침내 너희 아빠가 뜰어 고칠 수 없는 벽돌집에 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뛰어넘어 앞으로를 내다보는 능력은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항상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성전에서 결혼하며 세계를 보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했다. 딸인 캐시는 지금도, “우리는 모두 여행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그것은

우리 집안의 기질인가봐요. 우리는 아빠로부터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일도 없고 가기에 너무 먼 길도 없다는 생각을 물려 받았어요.”라고 말한다. 버지니아는 “아빠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치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세요.”라고 덧붙인다.

힝클리 부대관장 자신이 어려운 일에 굴해 본 적이 없다. 신혼 시절에 힝클리가 난방 시설이 없는 여름 가옥인 힝클리 농가로 이사했다. 캐시는 이렇게 말한다. “아빠는 다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던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정면으로 접근하셨어요. 먼저 난방로를 주문하시고는 설치 방법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난방로는 제대로 잘 작동했어요. 아빠는 우리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에 임하기를 바라셨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다음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따르면 그것은 제대로 작동된다는 방식 말이에요.”

“아빠는 못고치시는 것이 없었어요.” 디의 말이다. “그것이 세탁기의 변속 장치든 잔디깎는 기계이든 또는 가족용 자동차이든 간에 말이에요. 그토록 풍부한 재능은 비범한 실용주의 및 분별력과 연결되어 아빠의 인생에 막대한 배당금을 돌려 주었어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났지만 아빠는 그것들에 대해 늘 독특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셨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의 동료들은 그가 놀라운 직감을 갖고 있으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육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한다.

그는 살아오면서 교회의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인신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조용하고 품위있게 그 상황을 처리해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는 힘있지만 경의를 표하는 태도로서 임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 방법으로 예언자의 직분을 계승하도록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듭하여 확신시켜 왔다.

“모든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이 담겨 있는 이 교회의 머리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을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에 그분의 방법으로 부르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그들을 하늘로 불러 해임시키는 것도 우리가 다쳐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주님의 뜻이 나타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 곧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에 대한 전체적이고 완벽한 충성과 함께 단합된 마음과 형제애가 있음을 여러분과 전세계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든 간에 간결하지만

인정어린 태도로 이야기한다. 그는 방황하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할 때나 과거와 현재의 충실한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자주 눈물을 흘리곤 한다. 과거는 현재의 모형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그의 말씀과 저술은 교회사에 나오는 사건들과, 이 경륜의 시대의 사람들과 사건에 관한 방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과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앙과 지식은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샀던 것입니다.”라고 말해 왔다.

힝클리 부대관장에게도 많은 개척자 선조들이 있다. 1867년에 브리감영은 힝클리 부대관장의 조부인 이라 나다니엘 힝클리에게 폭풍우와 인디안들로부터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브 크리크에 요새를 세우라는 부름을 주었다.(금년 5월에 힝클리 부대관장은 복원시킨 그 요새를 헌납했다.) 힝클리 자매의 친할머니인 메리 고블이 영국에서 유타로 이주해 올 때는 불과 13세였다. 메리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평원을 횡단하던 도중에 죽었으며 그녀도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신앙의 상징으로서 메리 고블의 험난한 여행을 종종 이야기한다. 힝클리 자매는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벨리 뮤직 홀에 앉아 있다. 아빠는 손수레 부대를 기념하는 지역 노년의 모임의 특별 연사로 여기에 와 계시단다. 나는 메리 고블의 이야기가 재빨리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어.”



힝클리 부대관장은 초기 성도들의 노력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으며 깊이 감사하고 있다.

왼쪽 위: 뉴욕, 페이에트의 피터 휘트머의 집에서 열린 교회 회복 150주년 기념식에서 말씀하고 있는 힝클리 부대관장. 아래: 일리노이주, 니부에서.

오른쪽 위: 힝클리 부대관장과 아내 마조리는 그들의 개척자 선조들처럼 복음 원리에 기초를 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라며 발전하고 더욱 훌륭하게 되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들이 제 자리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걸치레가 전혀 없다. 주 장관들이나 교회 회원들이나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그가 스페인의 국왕인 후안 카를로스 1세와 소피아 왕비를 만나 그들이 아름다운 가족 장정의 물몬경을 선물할 때 함께 있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열정으로 그들에게 그 책에 관해 이야기했다.

로마에 잠깐 들렀을 때 힝클리 부대관장은 바티칸 도서관 책임자인 레오날드 보일리 신부에게 물몬이즘 백과 사전 한 권을 주었다. 그 두 사람은 마치 서로 오랜 친구인 것처럼 인사를 나누었다. 보일리 신부는 힝클리 부대관장의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나이를 잊게 만드는 화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헤어질 때 그 도서 책임자는 심한 아일랜드 사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으며 “서로를 강화시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해 줄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는” 힝클리 부대관장. 연차 대회에서 청중을 바라보고 있다.

투리로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정말 비범한 분이시군요.”라고 말했다.

스위스 성전의 대규모 개축 공사를 검열할 때 힝클리 부대관장은 1955년에 만난 원래의 헌납식을 도왔던 회원들을 만나 보려고 했다. 그 친구들은 힝클리 부대관장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다.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인 힝클리 부대관장은 오랜 세월 동안 취미 생활에 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집을 고치고 집 뜰을 개량하는 데 썼다. 사무실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는 작업복을 입고 가장 최근에 세운 주택 개량 계획에 따라 부지런히 망치질을 하면서 긴장을 푼다. 그는 추수 감사절 때 그가 짓고 있던 집의 기초를 봤다. 그는 언제나 휴일은 일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한결같이 온 힘을 다해 일한다. 성전 헌납식 때 각 모임에서 말씀을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되풀이하는 경우는 좀

처럼 없다.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힝클리 자매는 이렇게 썼다. “늘 반복하는 소리지만 난 너희 아빠가 그렇게 바쁜 줄은 정말 몰랐단다. 아빠는 ...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이 잘 진행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둘 때도 아빠는 더욱더 전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틀 전에 너희 아빠에게 그렇게 몰두하여 계속 힘을 빼면 몸이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너희 아빠는 그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단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힝클리 부대관장은 유머 감각을 지켜 왔다. 유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이다. 버지니아는 아빠가 농담을 할 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빠는 제일 우스운 대목에 이를 때쯤 되면 너무 웃으셔서 말씀을 제대로 하시지 못해요.”

힝클리 부대관장은 많은 경우에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든다. 한번은 오후 일찍 열린 예산 모임을 진행할 때였다.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들이 다음 해에 필요한 경비를 발표하는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다른 총관리 역

원 한 명이 힝클리 부대관장을 돌아보면서 “부대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손바닥으로 턱을 괴고 듣고 있던 힝클리 부대관장은 “점심으로 속을 채운 폭잡은 다시 먹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으며 긴장이 풀렸다. 건물 건축 계획을 검토할 때 힝클리 부대관장은 종종 “세워진 예산보다 더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힝클리의 법칙”을 참조한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가족들로부터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을 지나치게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오랫동안 세인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만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부모들이 키워 준 특성이다. 힝클리 자매는 자녀 및 손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오랜 시간을 세계 각지의 소인이 찍힌 편지로 해결하였다. 버지니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아빠의 부름을 알게 된 것은 엄마를 통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 부름에 따르는 경험들을 우리와 나누셨고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엄마가 한국 서울 성전 헌납식에 아빠와 함께 참석하셔서 헌납식을 마치고 나올 때 복도에 한복을 입고 줄지어 서 있던 아름다운 여성들에 대한 애기를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들이 보신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었어요. 반면에 아빠는 ‘웃이라고? 무슨 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편지가 얼마 동안의 헤어짐을 매워 주었음에도 힝클리 자매는 가족들과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했

다. 힝클리 부대관장이 그녀에게 결혼 50주년을 어떻게 기념하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 그녀는 즉시 “아이들과 함께 홍콩 거리를 거닐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그 소망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자녀들은 그 여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캐시는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홍콩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홍콩에 갔을 때는 집에 온 것처럼 느꼈어요. 마침내 홍콩에 다다른 것은 아빠와 엄마의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이었어요.”

버지니아는 “우리는 아빠와 엄마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거나 자신을 과장되게 나타내 보이는 일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은 전혀 아빠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는 힝클리가 일과에서 정구적인 한 부분이지만 그들 중 아무도 그 시간에 심각한 복음 토론을 나누었던 기억은 별로 없다. 가치관과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아빠는 독재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제인의 말이다. “하지만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는 늘 알고 있었어요.”

딕은 성장기에 자신에게 미친 아빠의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 고민거리에 대해 아빠와 많이 이야기해 본 기억은 없어

요. 하지만 전 마음속으로 아빠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제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빠는 닷과 같았어요. 자신의 느낌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단지 아빠가 아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뿐이었어요. 아빠에게 하나님은 실재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 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아빠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짓밟히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외롭고 근심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빠가 자주 사용하셨던 문구는 ‘저희가 후회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였어요.”

캐시는 이렇게 덧붙인다. “가정 생활이 안정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죠.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아빠의 가치관과 결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는다 고 느꼈으며 그것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라며 발전하고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그것은 근본적인 것들이 제 자리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힝클리 부대관장은 부름을 받을 때마다 자신있게 인도하였으며 교회에 늘 안정감을 주어왔다. 그는 강하면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강화시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해 줄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다. 그는 종종 브리감 영이 평원에서 두 무리의 손수레 부대가 겨울을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가십시오.”라고 탄원

했던 것을 인용했다.

아마 그가 낙담과 절망과 죄의 평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때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의 심금을 울렸는지도 모른다. “저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며 구조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 인생의 사명을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벼랑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⁸

힝클리 부대관장은 61년 전에 부친에게서 받았던 권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을 잊고 일하려 나갔다. 그 결심을 확고하게 지켜옴으로써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닷과 부동적인 복극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재치있고 따뜻하며 따를 만한 귀감이 되는 사람을 아는 행운을 얻도록 축복해 주었다. 어느 현명한 이가 말한 것처럼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 전도용 소책자는 훌륭하게 살아가는 충실한 말일성도의 생활이다.

그러한 것이 바로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의 생활이다. □

참고 문헌

1. *엔사인*, 1987년 7월호, 7쪽.
2. *엔사인*, 1989년 5월호, 66쪽.
3. *임프로브먼트 이라*, 1961년 12월호, 978쪽.
4. *엔사인*, 1982년 5월호, 45쪽.
5. *엔사인*, 1990년 5월호, 97쪽.
6.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59쪽.
7. *엔사인*, 1991년 11월호, 54쪽.
8. *엔사인*, 1991년 11월호, 59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일을 끝내고 신앙을 지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사무실의 놀라운 정도로 (때때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세 명의 비서가 동시에 필요할 만큼, 그가 매일 처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일감을 고려해 볼 때 놀랄만하게) 깨끗한 책상의 맞은편 벽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림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제2보좌를 따듯하게 내려다 보고 있다. 몬슨 부대관장은 그 그림을 아주 좋아한다. 그것은 그가 22세의 나이로 감독이 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는 일하도록 배정된 어느 곳이나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저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한다.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혹은 사무실의 일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축복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저 그림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문하곤 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런 다음 저는 그대로 하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그의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몬

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덧붙인다. “저는 단 한번도 일을 보류했다가 수행하는 선택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쾌활하고 정력적인 66세의 몬슨 부대관장을 만나 본다면, 그가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의 제2보좌로 봉사한 8년을 포함해, 30여년 이상을 이미 사도로 봉사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진정 그는 구세주를 위해 그의 일생을 헌신해 왔으며, 개인적인 삶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의 부름에서 주님과 같이 행하고자 노력했다. 그가 좋아하는 성구의 하나처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항상 “주님의 심부름하는 자”(교리와 성약 64:29)였다.

“저의 형님인 톰을 알기 위해선 저희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형님보다 더 조용하셨죠.”라고 몬슨 부대관장의 동생인 로버트는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맡으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끝까지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행했다면, 중단하지 않고 줄곧 그것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완전히 100퍼센트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왼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1985년 11월 10일부터 대관장단에서 봉사해 왔다.

오른쪽: “토미”라고 불리웠던 몬슨 부대관장은 유티주 슬트레이크시티에서 고등학교에 다녔다.



확실히 그의 지상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유산—지금은 이러한 유산이 하늘 아버지의 사업에 긴요하게 쓰이는—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그의 동료들이 쉽게 인지하는 그의 다재 다능한 성품 가운데 하나이다.

29년 이상을 그의 비서로 일해온 린 캐네티터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분의 생애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교회의 일반 회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일을 미소를 지으며 행하십니다. 그분은 힘든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 내는 놀랄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복잡하고 세밀한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철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이라도 끝마치지 않고 미뤄두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197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마무리 공을 원함”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그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가구점의 유리창에 붙여진 단 두 단어의 광고를 보았던 몬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생활

속에서나 사업에서는 언제나 마무리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낮지만, 그들은 많은 기회를 갖고 있고, 그들의 공헌 또한 위대합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레이스를 달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답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내가 [생물] 마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십시오.]’”(고린도전서 9:24 참조)

몬슨 부대관장의 전심 전력하여 헌신하고 한번 결심한 것을 결코 굽히지 않는 이러한 뛰어난 자질은 일에서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그의 개인적인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 같다. 톰(청소년기에는 “도미”라고도 불렀다) 몬슨을 잘 아는 사람들은 흔히 그에 대해 성실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한다. 그의 성실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알게 된 사람들, 특히 그가 최근의 몹시 바쁜 생활로 인해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들을 기억한다)에 대해서도 한치의 변화가 없다.

그의 오랜 친구인 존 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톰이 그의 와드에 사는

왼쪽: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 몬슨 부대관장(350여 명의 동료 중 몇 명과 함께)은 데저렛 뉴스사의 총경영자로 근무했다.

오른쪽: 1963년 10월 4일, 십이서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을 무렵. 그의 아내 프랜시스, 세 자녀인 토마스(12세), 앤(9세), 클라크(4세)와 함께.

미망인들(그들 중 87명)을 돌보았던 것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성실과 헌신의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들은 감독직에서 해임되면, 다른 직책에서 봉사하게 되고, 따라서 미망인들을 후임 감독들에게 맡겼는데, 톰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는 가장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또한 “유명 인사”가 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 87명의 미망인들은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감독”은 그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방문했다. 몇 해 전 크리스마스 절기의 어느 날 밤, 몬슨 부대관장은 늘 하던 대로, 연초부터 그의 닭장에서 길렀던 통통한 닭들을 언제든지 요

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의 주머니를 털어 구입한 선물들을 전하면서 “그의” 미망인들을 한 명씩 방문하고 있었다. 그가 잘 알게 된 솔트레이크시의 어두운, 그것도 이제 눈까지 멀기 시작하여 세상이 더욱 어둡게 느껴지는 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보내는 그의 워드 회원 중 한 명을 찾아갔다. 몬슨 부대관장이 이 사랑스러운 자매의 곁으로 다가갔을 때, 그녀는 힘들게 손을 뻗어 크리스마스 절기 동안 자신을 찾아온 유일한 방문자인 그의 손을 어루만졌다. “감독님, 감독님 맞죠?” 그녀가 말했다.

“예, 헤이티 자매님, 집니다.”

“오, 감독님,” 그녀의 실명한 눈 사이로 눈물이 흘러 내렸다. “감독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항상 그렇게 했다. 연로한 분들에 대해 그의 이 공손하고 신성할 정도로 성실하며 존경하는 태도에는 또 다른 성실함 즉,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고무적인 특징일지도 모르는, 고요하고 작은 영의 속삭임에 대한 성실함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몬슨 부대관장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감미로운 느낌은 우리의 어깨에 놓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의 축복사의 축복문에서, 저는 특별한 은사를 갖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저의 생애를 풍족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몬슨 부대관장의 삶—십이사도와 대관장단의 일원으로서의 삶은 길고 광범위한 성신의 속삭임의 일대기로서, 그는 성신의 속삭임에 대한 그의 반응으로 인해 영적이고 다양한 기적들을 많이 동반했다.

얼마 전 몬슨 부대관장의 사무실로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의 노모는 임종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원은 죽기 전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총관리 역원”을 만나 보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비서들은 이와 같은 전화가 오면 몬슨 부대관장이 전화를 받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전화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그의 사무실로 찾아오는 이러한 요청의 방문들로 인해 몬슨 부대관장이 그의 전 생애를 보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서들 중 한 명이 이 특별한 전화를 받아서 내용을 주의 깊게 메모했으며, 이를 몬슨 부대관장에게 전해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또한 몬슨 부대관장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가 방문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할머니를 위해 꼭 기도해 줄 것이라고 정중하게 전했다. 그 효성스런 아들은 매우 감사하고 흠족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몬슨 부대관장은 방문을 할 수가

없었다. 낮 시간이 지났으며, 몬슨 부대관장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의 마음은 더욱 편치 못했다. 그 다음날 그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가 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숨겨 가는 자매를 위해 주소만 들고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전혀 낯선 거리와 골목과 집들을 지나 결국은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고서, 그는 깜짝 놀라는 그녀의 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하기 위해 준비한 꽃을 전했다. 그런 다음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처음 만나는 친구의 아담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몬슨 부대관장은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여러 복음 원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비록 그녀가 눈을 뜨지도 못하고 또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위대한 사도의 태도를 세세히 목격한 아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누가 그녀를 방문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몬슨 부대관장이 그녀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축복을 준 다음, 몬슨 부대관장은 벽난로 위 선반에 놓인, 자신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 집을 나섰다.

그 사랑스러운 자매는 이 세상에서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서, 아홉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 날 지방 신문의 부음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엘리스 피터슨 틴지(82세), 노환으로 자택에서 별세.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랑이 많은 분이었음.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특별한 축복과 영향력을 주셨던 몬슨 부대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종 아무리 사소하거나 힘든 경우에도 중요한 영적인 속삭임을 따르는 것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와 같이 몬슨 부대관장이 연로하신 분들에게 성실하게 대한다는 이야기 외에도 그가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관심을 보여 주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도 주목해볼 만하다. 몬슨 부대관장에게는 그에게 교회의 모든 회원들, 특히 청소년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도록 해주는 항상 젊은이다운 무엇인가가 있다. 그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영적인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해군에서 제대한 젊은 톰 몬슨은 곧바로 와드 서기로 부름받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감독단이 상향회의 문제를 포함한 와드 청소년들의 현저한 활동 부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분명히 그 젊은 서기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경청을 한 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와드의 상향회와 청소년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와드의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소에 깊이 있게 생각했던 그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해 나갔다. 말을 마친 후, 자기가 너무 불손하고 주제넘지 않았나 싶어, 그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선 그 방을 나갔다.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감독단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라고 했다. 그들은 그를 즉시 방으로 불러 와드 서기직을 해임하고, 상향회 회장의 부름을 주었다. 6개월 후, 젊은 상향회 회장이 열심히 준비한 제 67와드의 합동 모임은 템플 뷰 스테이크 내의 다른 지도자들이 부러워 할만큼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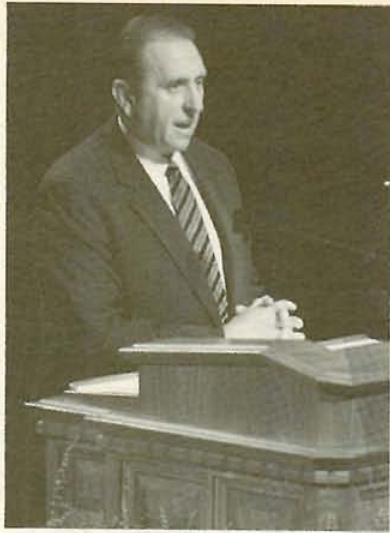
몬슨 부대관장의 청소년들에 대한 평생에 걸친 헌신은 미국 보이스카웃 집행 이사회에서 25년 동안이나 봉사해 온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집행 이사회에서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봉사했다. 제르 비 랫클리프, 미국 보이스카웃 집행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톰 몬슨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톰은 열의에 있어서 모든 이의 귀감이 됩니다. 특히 그 말의 원래 뜻인 ‘하나님 안에서’ 또는 문자 그대로 ‘

영감을 받은’이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는 그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와 같은 청소년 지도자를 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 동료는 몬슨 부대관장이 청소년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가 아직도 소년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유타 재즈(유타주 농구팀-역자 주)나 대학 농구 시합 때 그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 경기를 관람합니다. 톰은 큰 책임을 떠맡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큰 열의를 보여 줍니다.”

특히, 유명한 템플 스케이어에 서 있는 갈매기 기념비를 처음 방문했다가, 다소 명상적인 사람들이 그 투명하게 비치는 연못으로 던진 동전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궁금해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열두 살 때라는 것을 안다면, 여하튼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실제로 토미 몬슨은 템플 스케이어 방문으로 해서 큰 감명을 받았으며, 그는 와드로 돌아 와서 갈매기와 매뚜기에 관한 아름다운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것이 그의 첫번째 말씀이었다.

지금은 장난기가 덜하지만 그래도 그 천성은 여전한 몬슨 부대관장은 지역, 국내, 국제적 수준의 활동이 항상 두드러지고 높이 평가되는 지



스님 권종영, 임종철 기자

왼쪽 상단: 힘차게 말씀하시는 몬슨 부대관장. 그는 신앙을 증진시키는 경험을 나누는 사람으로 잘 알려졌다. 오른쪽 상단: 1948년 10월, 토마스 에스 몬슨과 결혼한 프랜시스 존슨 몬슨은 교회, 가족, 친구들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타협하지 않는 성실함에 있어서 남편에 필적할 만하다.

아래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오랜 25년 동안이나 미국 보이스카웃 집행 이사회에서 봉사했다.

도자이다. 그는 관대함, 친절, 낙천적 기질 덕분에 많은 사업과 전문가 그룹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정부 관련 분야에서도 훌륭하게 봉사해 왔다.

45년 동안 데저렛 뉴스 출판사에서 함께 일해 온 동료 중 하나인 클렌 스날은(몬슨 부대관장은 지금 이 출판사의 이사장이고, 스날 형제는 이사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제가 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데저렛 뉴스의 광고부에서 근무했고, 저는 편집부에 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지성과 기억력을 지닌 정력적이고 열정적이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려 깊고 주의 깊었습니다. 톰은 항상 사람들에게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 봉사 단체의 한 젊은 회원은 몬슨 부대관장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몬슨 부대관장의 순수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그의 미소와
시원스러운 웃음에 잘 나타나 있다.

“몇몇 유력 인사들은 바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구요. 그와는 반대로 몬슨 부대관장님은 확실히 유력 인사이지만, 결코 아래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제게 항상 대단히 사려 깊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의 오랜 친구이자 솔트레이크시티 및 솔트레이크 근교를 포함하는 지역 사회와 유타주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민 활동에서 함께 일했던 로버트 에이치 비쇼프 형제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50 여년 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몬슨 부대관장이십니다. 우리는 25년 이상을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사회 모임, 위원회 모임, 결혼식, 장례식, 스포츠 행사, 시민 행사, 비공식 만찬, 개인적인 방문 등, 여러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몬슨 부대관장님의 품성에서 따

스한 빛을 느낍니다. 그분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친절하셔서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위대한 은사를 지니셨습니다. 명철한 지성, 완벽한 판단, 명확한 기억력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그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분의 명성은 교회 밖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분을 만나 본 사람들은 그분을 가장 존경하게 됩니다.”

교회, 가정, 친구들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타협하지 않는 성실한 면에서 몬슨 부대관장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프랜시스 존슨 몬슨 자매이다. 몬슨 자매는 조용하고 겸손하다. 그러나 프랜시스 몬슨 자매가 아니었다면, 성도들이 알아주고 존경하는 토마스 몬슨 부대관장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몬슨 부대관장의 부름 때문에 결혼 초기부터—처음 워드 서기의 부름부터 현재 대관장단의 부름에 이르기까지—몬슨 자매는 45년 동안 교회 모임에서 그녀의 남편과 함께 앉아 보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몬슨 부대관장은 말한다. “결코 한번도,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 아내가 저의 어떠한 봉사에도 그것을 못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내 프랜시스님은 오직 지지와 격려만을 해주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의 딸인 앤 몬슨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서 먼 곳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아버지는 세계 도처에 있는 선교부를 여행하시곤 했는데, 한번 떠나시면 5주나 6주가 걸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분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안계실 때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로써 뿐만 아니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일을 항상 성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화한 태도로 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즈음의 많은 여성들과는 좀 다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시기보다는, 아들의 행복한 미소나 손자의 반기는 손과 같은 것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정을 받아 오셨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한때 저희 어머니가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머니의 영향력은 영원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어머니의 영향력에 감사드리며, 제가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

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사도의 딸로서 받았던 축복들을 되돌아 볼 때, 제가 받은 가장 의미있는 한 가지 은사이자 축복은 아버지께서 결혼하신 여인,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몇 해 전 스칸디나비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몬슨 부대관장은 존 헬렌더라는 26세의 지체 부자유자인 젊은이를 알게 되었다. 존은 스웨덴의 쿡스백카에서 한 젊은이들의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1,500미터 경주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우승할 가망성은 커녕,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출발선에 서서 출발했다.

출발 신호가 울린 때부터 이미 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다른 선수들이 다 뛰어갔을 때까지 그는 출발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모든 선수들이 그를 지나쳐 두 바퀴째를 다 돌려고 할 때, 그는 겨우 첫바퀴의 어느 정도밖에 못가고 있었다. 존이 겨우 반을 달리고 있을 때, 장내에서는 시합이 끝나고 우승자에 대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존이 트랙을 조용히 빠져나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 헬렌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몬슨 부대관장은 말한다. 그는 계속

달렸다. 그의 속도는 너무 느렸고, 피로감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관중들의 냉소에도 그의 굳은 결의는 분명했다. 자리에서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존 헬렌더가 1,500미터를 완주했을 때, 경기를 끝낸 비슷한 연령의 다른 참가자들이 결승 줄을 쳤고, 관중석은 흥분의 도가니였다. 관중들의 환호성은 대단했다. 비틀거리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존 헬렌더는 이 챔피언을 위해 새로이 쳐 놓은 줄을 끊었다. 바로 그것은 결의와 용기와 전념과 신앙의 승리였다.

이 이야기는 몬슨 부대관장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다.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그는 어떠한 일이라도 한번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을 내는 그의 아버지를 생각할 것이며, 또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집으로 찾아온 배고픈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나누어주었던 그의 어머니를 떠올릴 것이다. 그 부모에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삶 또한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헌신적인 삶이었다. 토마스 몬슨 부대관장은 그가 만났던 존 헬렌더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는 그들의 시작이 보잘것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들이 이 생에서 부여받지 못한 많은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이유로 해서 그는 그의 사랑과 성실과 강인

한 성품으로 그들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만약 오늘 존 헬렌더가 달리기 경주를 한다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트랙의 커브로 내려가든지, 필요하다면 트랙 바로 밖에서 소리쳐 격려하고, 지친 팔을 들어주며,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매순간 존과 또는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완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체구가 큰 토마스 몬슨이 그들을 부축하여 승리로 데려다 줄 것이다. 성공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패배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결승선 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확실할 것이다.

새로운 교회 대관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한 바로 이 분이 마무리공이요, 승리자요,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의 친구이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가 한때 “교회 행정의 천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딸에 의하면, 그의 위대한 재능은 아마 “그의 손자들을 위해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분이 바로 그러한 모든 일을 하는 그 사람이다. 결국 세상의 구세주 앞에 서서 항상 사랑했던 그림 속의 그 눈빛과 마주하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디모데후서 4:7) □

십대 청소년의 지도

데브라 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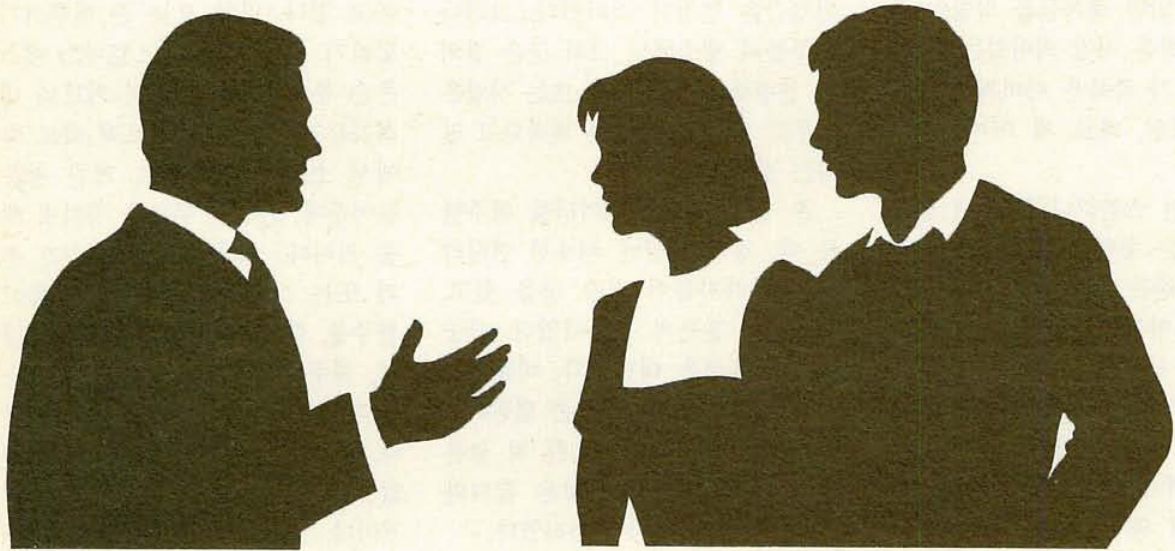


그림: 데이브 맥도널드

저는 교사 생활을 여러 해 동안 하고 나서 교회에서 십대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십대의 청소년들은 복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회복된 복음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경우 성령은 반원들에게 차분하면서도 동기를 부여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십대 청소년이 주목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름을 불러 존경심을 표시해 줍니다. 제가 공과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할 경우 반원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려 깊게 호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을 시끄럽게 하는 반원들의 눈을 마주보는 것은 문

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가르치면서 교실을 도는 것을 좋아 하는데, 이는 청소년은 선생님이 그들의 곁에 가까이 있을 때 암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명랑하고 씩씩한 반원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도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들은 존경과 신뢰로써 대접을 받게 될 때 대체로 그들은 같은 기분으로 호응을 합니다.

저는 반원들이 활발하게 독서를 하고 토의를 하거나 상황을 연출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과 방법의 다양성은 학습과 지도를 재미있게 합니다.

매 공과가 끝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저는 개선할 점을 확인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메모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저는 복음의 화제에 대해 흥미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일은 평생의 과업임

구 세주께서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큰 무리를 먹이셨다. 다음날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 중 일부는 가버나움에서 구세주를 찾았다. 구세주께서는 이들이 찾는 것은 그의 애정어린 기적으로 하여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빵으로 하여 그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이 채워졌기 때문이었음을 아셨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한복음 6:27)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기타 수단을 별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수고는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 노고를 말한다. 이 수고는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하는 과업입니다.

이러한 평생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합한 계획을 설계한다

대부분의 위대한 사업은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의 처지에 알맞은 영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새크레멘토에 사는 살렌 알런드 자매는 자기의 시간을 쪼개어서 직장, 교회의 부름 및 오랜 지병에 시달리는 자매를 간호하는 데 쓰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회



그림 로리 윌

고한다. “저는 교회 잡지를 읽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스테이크장은 모든 스테이크 회원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가정의 밤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고, 알런드 자매는,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가족에게 제공해야 할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저 자신에게도 줘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적어도 한 시간을 할애하였다. “저는 매주 월요일 저녁 시간을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 잡지와 교회 서적을 읽고 또 어떤 때에는 식량 비축을 하거나 교회 비디오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도저히 틈을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의 촉진을 위해 규칙적인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을 한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일은 우리 삶의 한 과정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을 때 이따금 영적인 순간을 경험하지만 영

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소망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영성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분함을 느끼게 된다. 유타주 바운티폴 출신으로 한창 젊은 어떤 어머니는 자기 와드에 속한 어떤 특별한 자매의 영적인 감정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녀를 도와주었는지 이렇게 회고한다. “제게 쌍둥이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아기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제게는 이미 나이 어린 세 자녀가 있었으며 한 아이는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정신적인 장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장애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집을 떠나 사업을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거의 집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친절한 친구들이 며칠 밤낮을 저의 집에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자매가 아침 6시 30분에 저의 집에 왔습니다. 그 자매는 여러 시간을 저의 집에 있으면서 제가 아기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집안을 정돈하며, 큰 애들의 학교갈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자매는 4개월 동안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자매가 없었다면 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의 사랑어린 봉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엔사인, 1976년 3월호, 5쪽)

•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성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



결국 그것은 진실이였다

미라 메르세데스 베레스 로만

접은 선교사들이 멕시코시에 소재한 저의 집에 방문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기로 하지요. 하지만 메시지만 전하세요. 저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만난 것은 플로레스의 가족이 저를 가정의 밤에 초대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가정의 밤에 참석한 것이 결국은 선교사들을 저의 집에 오게 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 좋아, 딱 한 시간만 그들을 만날꺼야.** 저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주에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저는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 하나는 잘 지키는군.** 문을 열고 보니까 뭔가 시작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활기에 찬 두 젊은이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저의 신앙을 거론하리라 예상하고 단단히 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선교사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및 성신에 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하나



미라 베레스 자매(왼쪽 사진)는 1992년 8월부터 1994년 3월까지 멕시코 레온 선교부에서 봉사하였다. 그녀(오른쪽 사진)는 멕시코 국기 창작을 기념하는 고향의 기념비 옆에서 있다.

님 아버지는 저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아들은 저를 위해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셨으며, 성신은 저와 교통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모두가 논리 정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셨는데, 그분의 방문에 관한

얘기가 물몬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작은 책을 저에게 팔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들은 뭔가 잘못 짚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이미 저를 위해 이 책을 샀으며 저는 단지 그 책을 읽기만 하면 된다고 선교사들은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그 책을 받긴 하였습니다만 저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두 번째로 저의 집을 방문하여서는 제가 침례를 받을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답니다. 내가 아기였을 적에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는 인생에 뜻있는 일이지요.” 선교사들은 침례란 물에 완전히 잠겨서 해야 하며 아이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8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저의 죄는 이미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의 신앙을 면밀하게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집회 중간에 빠져 나와 저의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저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게 미소를 지으며 반겨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나를 개종시키려 한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공과도 무척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경에 손도 안땀지만 토론을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사람에 관해 배웠습니다. 바로 그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즉 잃어버린 진실이 다시 세상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정말 사실일까?'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다면 그분은 제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더군요. 잠시 동안 저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신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어찌 될 것인가?

다음에 선교사들은 다시 와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으로서 전세(전세가 정말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겨졌습니다)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두 함께 살았으며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은 육체를 얻으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과연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제가 저의 육신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혜의 말씀과 순결의 법을 지키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선교사들의 교회를 믿진 않았지만 선교사의 권고에 따라 제가 이러한 표준에 따라 살기로 동의하였을 때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5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선교사들이 십일조, 금식,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계명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제가 어째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은 십일조를 내고 금식 헌금을 낸다는 것은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10개의 사과를 주시고 단지 한 개의 사과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열 개의 사과를 주시고 나서 한 개를 되돌려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내게 사과 9개를 주시면 안되나 하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늘 경제적으로 쪼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께 불충실해서 그런 걸까요?

마지막 토론에서 선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친 것을 복습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침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들이 나에게 침례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맹렬하게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여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제 얘기를 듣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성구를 인용하여 설명해 주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을 거절하고 선교사들에게 나가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드디어 저는 선교사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람으로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선교사를 더 이상 그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으로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로부터 약 6주일 후 어느 일요일 오후 선교사들은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로 중 한 사람이 제가 일주일 안으로 물론경을 읽는 데 무슨 애로가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얘기 속에서 도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선교사는 내가 이 작은 책을 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좋아, 내가 그보다 짧은 시간내에 이 책을 읽어 본때를 보여 주지!* 제가 물론경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 동안 우리 세 사람이 다음 화요일에 함께 금식을 하자는 선교사들의 제의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물론경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전에 망설였던 것과는 달리 저는 그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싶은 생각도 사라져 새벽 3시까지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날 일을 해야 했지만 쉬는 시간마다 찜을 내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오자마자 저는 자석에 끌린 쇠조각처럼 책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를 선교사에게 소개한 플로레스의 가족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침례를 받으니까 하고 생각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레스 형제는 제 얘기가 정말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정말

INGENIERIA ELECTRONICA
'FLORES'
 SERVICIO Y VENTA de REFACCIONES
 DE APARATOS ELECTRONICOS
 V. GUERRERO N° 116 TEL. 2-45-52



베레스 자매(가운데 사진)가 가정의 밤에서 그녀를 선교사에게 소개한 플로레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이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나더니 플로레스 가족은 다음날 저와 선교사와 함께 금식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저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저의 집에서 금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

다. 저는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고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성구 하나를 읽었는데, 이 성구는 저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였습니다. “영생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주어진 이 생이 지나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의 어둠이 다가 오느니라.”(엘마서 34:33) 저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가 찾고 있는 교회가 참된지, 제가 이 교회에 입교를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들

었던 대로 저의 영혼 깊이 이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금식을 끝내고 선교사들에게 침례를 받겠다는 저의 결정을 알려 주었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몰몬경을 계속 읽어서 제가 그것을 읽기 시작하여 6일 밤 만에 다 읽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도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몰몬경을 “작은 책”이라고 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위대한 책입니다. 사탄이 저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으려 했지만, 1990년 2월 19일에 저는 침례를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셨으며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아버지 그분의 아들을 보았으며, 진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의식을 집행할 수 있고 우리가 성약을 충실하고 참되게 지킬 때 해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성약을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저는 하나님께 플로레스 가족과 선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에 의해 도구의 역할을 하여 제가 주님의 귀중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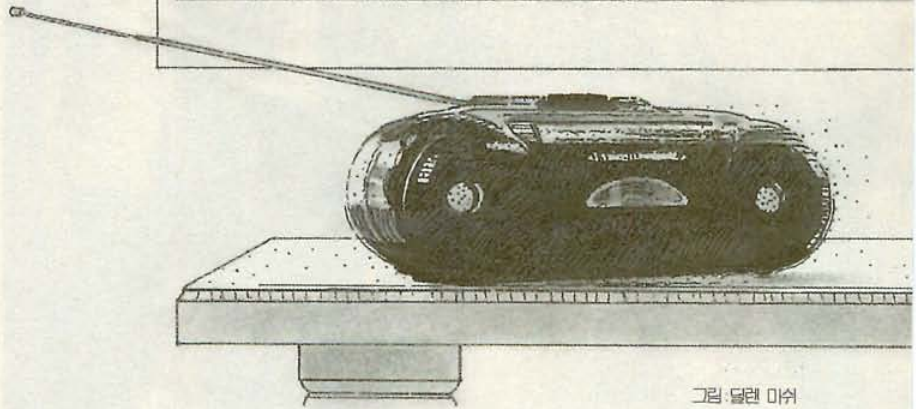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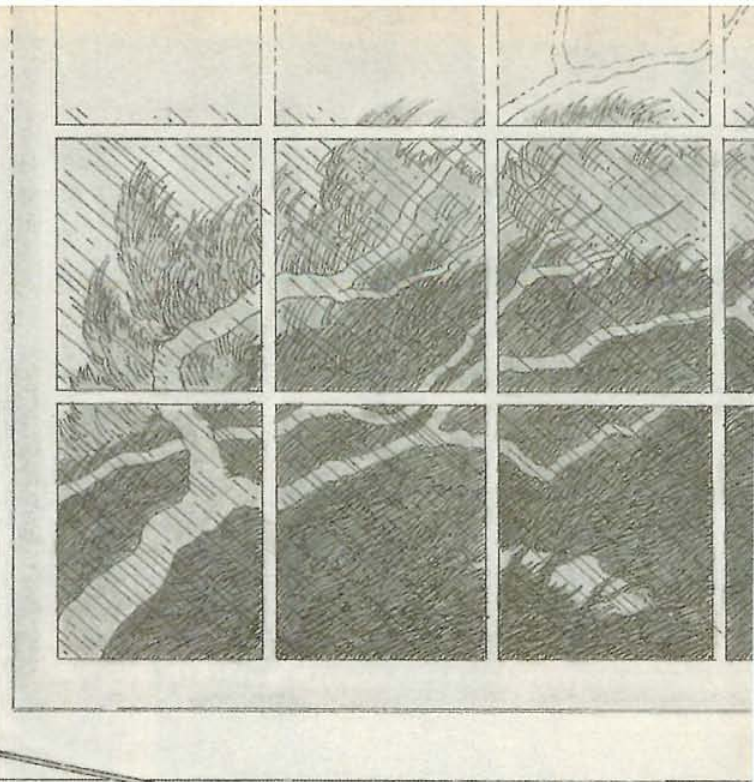


그림: 달연 미쉬

노리코 오노

여름이 끝나는 9월의 일이었다.
태풍 13호가 일본 열도로 몰려오고 있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아나운서들은 이것이 내

가 살고 있는 곳 근처로 상륙할지도 모른다고 보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2년 전에도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기억이 났다. 집 밖의 나무들은 세차게 흔들려 쓰러졌고 강풍이 집 창문을 거세게 때렸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태풍이 다가오다니! 라디오 방송은 이번 태풍이 이전의 태풍만큼 강하다고 경고했다.

나는 어린 자녀를 팔로 안고 머리에는 안전모를 쓴 채 응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래 전 이 가방들을 준비해 두었으나 제각기 다른 여러 장소에 이를 보관해 놓았다. 대략 새벽 3시경에 태풍이 강타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나는 온종일 응급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기를 거듭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가방 속에 넣어 두지 않은 약을 구입하려고 백화점에 갔다. 또한 가족 역사와 기타의 기록들을 그 속에 넣어 두었다. 수도물이 끊길 때를 대비하여 나는 욕조에 물을 채웠다.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준비를 다 갖춰 놓고 나는 초조한 심정으로 남편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세 살 난 딸 아이는 “엄마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 아이의 기도를 듣고 나자 화평한 느낌이 찾아들었고,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남편이 도착했을 때 비로소 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웠다. 나는 손에 쉽게 닿는 곳에 안전모와 신발 및 응급 가방을 두고 잠을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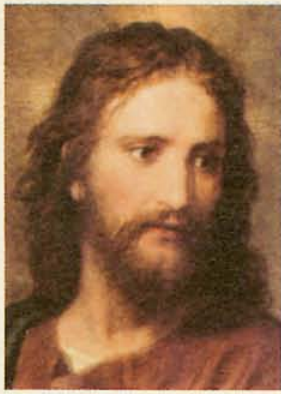
다행히도 태풍은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위력적인 태풍이 몰려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만반의 준비를 했고 또한 알맞은 조치도 취했던 것이다.

이 일은 내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 지상의 마지막 날에는 아나운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시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경고의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것이다. 가족 역사도 정리하고, 비회원 친구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며, 성전에 좀더 자주 가고, 식량을 비축할 것이다. 준비를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이를 알고 계시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았다. 주님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마치 도적과도 같이 오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태복음 24:43~44)

그리스도의 재림일을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그분의 재림에 앞서 있게 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본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 그 위대한 날이 다가오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유한한 시간들을 현명하게 쓰고 싶고, 모든 면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 현명한 다섯 처녀같이 되고 싶다. (마태복음 25:1~13 참조) □



어둠에서 빛으로

회개의 은사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
칠십인

브라질의 한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기록했다. “회개는 눈물이 가득 고이게 하고 마음은 거의 죽은 듯 여겨지게 한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한 듯한 사람이 쓴 흥미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복음 원리에 꼭 맞는다.

진지한 회개는 심오한 비애감을 가져 온다. 이러한 느낌은 잘못을 인식한 연후에 오게 되는데, 이는 회개를 향해 나가는 위대한 여행의 첫번째이며 필수적인 단계라 하겠다. 이러한 길을 밟지 않는 한, 자신의 내적인 평화와 구세주의 안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영생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삶의 결정적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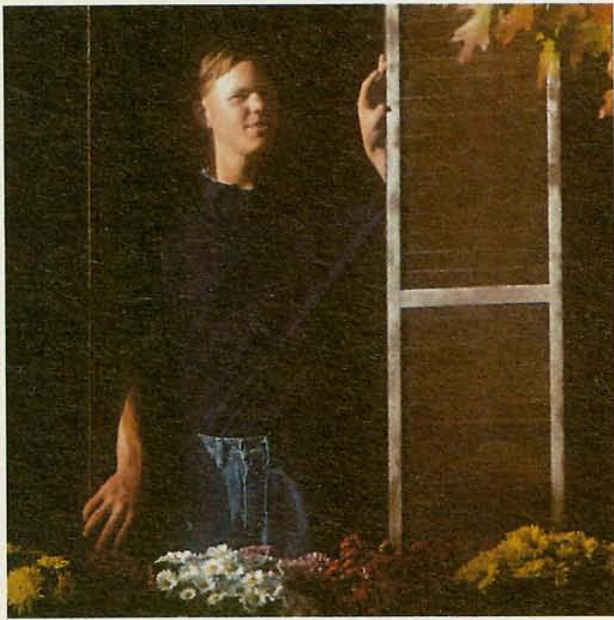
우리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렇듯 힘들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경험을 했다. 우리는 노아 왕의 제사이자 니파이의 후손인 엘마 일세를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젊었으나 아빈아다이가 한 말을 믿었으니, 아빈아다이가 저들에게 증거한 죄악을 알고 있었음이라. 그리하여 저는 왕에게 간청하여 아빈아다이에 대한 노여움을 풀고 그를 평안하게 떠나 가게 하자 하니, 왕이 더욱 노하여 엘마를 저들 가운데서 쫓아낸 다음 그의 종을 명하여 엘마를 따라가 죽이라 하였으나”(모사이아서 17:2~3)

예언자 아빈아다이의 말씀을 들은 엘마는 자신이 옳지 않은 율법과 교리에 따라 생활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명히 후회를 하고 슬픈 마음을 느꼈으며 새로운 생활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결정은 그의 행동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노아 왕이 군대를 보내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하려 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은밀히 사람들 가운데 다니며 아빈아다이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과 사람들의 구속에 대해 가르쳤다. 또한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의 사망과 권세, 부활 및 승천하심에 의해 이뤄진다고도 가르쳤다. 엘마는 신앙의 교리, 회개 및 진리를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 설교했으며, 새로운 성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야 하는 원리를 가르쳤다.(모사이아서 18장 참조)

훌륭한 또 하나의 실례는 그의 아들 엘마 이세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 역시 주님의 천사가 저들 앞에 나타나 구름 속에 친동 같은 음성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서 있는 땅을 진동시키듯 하강했을 때 삶의 결정적 순간에 봉착했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 젊은이들의 생활에 참으로 대단하고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모사이아서 27:8~37 참조)

엘마와 그의 친구들이 회개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겠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자신의 과거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된다.

영혼의 평화는 회개를 통해 받게 되는 가장 큰 보상 가운데 하나이다. 완전한 회개 없이 스스로 내적인 평화와 주님의 안식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인생이란 주고 받는 것의 연속이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기쁨과 슬픔을 위안과 아픔을, 그리고 행복과 고통을 서로 교환한다. 죄를 용서와 죄사함으로 바꾸는 일은 회개라고 하는 이 변화 과정을 통해 성취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회개의 길을 밟을 수 없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부자지간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던 간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각 개인이 밟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과 지지를 간구드릴 수 있다. 성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준다. 한편 이러한 회개의 절차는 계속되는 어떤 개인적 요건이라 하겠다.

그 보상과 축복 또한 개인적이다. 구원은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영원한 행복은 이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만일 사람이 이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이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러한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공의로운 일같이 생각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은사이며, 이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을 향유하

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즉 우리의 생활에 대단히 소중한 공기는 주변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으며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는 개인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 호흡기의 근육을 통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신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공기가 스스로 그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 폐를 채움으로써 세포에 활력을 주는 데 필요한 피를 재생시켜주지 않는다.

회개에도 이와 똑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그 자체가 은사이기는 하지만 회개는 신앙과 예지가 행사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회개를 고백한 다음에도 또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죄가 없이 순수한 듯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58: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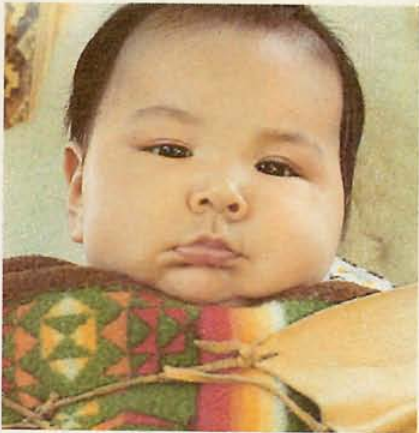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특성이며, 영혼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의 어려움이 어떤지 알고 있다. 자기 합리화와 교만은 회개의 크나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지고 교만을 멀리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다.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디서 12:27)

회개는 죄지은 사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준다. 이것은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데려다 준다. 회개는 그가 영원한 원리와 화합하게 하며, 그를 정의로운 이들에게로 다시 데려다 주고, 그로 하여금 또 한번 성신과 함께 하는 기쁨을 갖게 한다. 이 모두는 현세에서는 행복에 이르는 문을,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전한 기쁨에의 문을 열어 줄 것이다. □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부활하신 구세주는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셨을 때,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해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 (니파이삼서 17:21~24)

다음은 1994년 1월 23일 솔트레이크 태버나클로부터 위성 중계된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는 제목의 교회 노변의 모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이 지상 어느 곳에 아기의 출생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어린아이를 보면서 심오하고 감동적인 느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피부 빛깔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값진 선물이자 그분의 참된 자손임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마태복음 18:1~4 참조)

한때 차닝 폴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린아이들의 순백의 영혼을 갖고 우리 자신이 영면하

기까지 우리 가운데 일부는 ...높게 태어나 점점 더 젊어지고, 청결해지며, 단순해지고, 순진 무구해지길 소망해야만 합니다.”(“세상의 더딘 긴장,” 리더스 다이제스트, 1960년 6월호, 77쪽)

어린이들은 무고함과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본체이자 이 험난한 세상에 있어서의 소망과 기쁨의 요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학대받고 무시당하며, 분노와 야비한 이기심과 가장 극심한 악의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잔악 무도한 범범에 대해 더욱 잘 인식하도록 도처의 사람들 내부에 경고의 종을 울려야 할 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것은 어린이가 고통을 겪게 될 때는 언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씀드리기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그와 같은 고통의

증거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상당한 비극이 실재합니다. 어린이 학대는 언제나 존재했던 일로 짐작합니다만, 비극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에 대해 우리가 좀더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시간이 닥쳐 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마약 중독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어린이들, 그리고 출생하면서 갖게 된 지긋지긋한 장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돌아보십시오.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또한 매맞고, 무시되고, 버려지고, 성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고통스런 삶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아와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6)

전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또한 전세계의 어린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사 더욱더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의롭게 성장하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생활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부모에게도 축복이 임하여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훌륭히 양육하며, 그들에게 온 생애 동안 화평을 가져다 줄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간구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제게는 아주 훌륭하신 [어린이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갓 결혼하신 그분은 젊고 패기에 차 있었습니다. 열 살 난 우리 소년들은 그분을 하나의 이상으로 바라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위에) 걸고 있던 스카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트레일 빌더 클레시피케이션과 우리의 업적 및 목적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해가 어린이회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기억되는데 이는 그 훌륭하신 선생님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예배당은 아니었으나 공과 교실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론 주방에서 모임을 가졌

었고 보잘것없는 칠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언제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름에 걸맞게 여러 가지 학위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반원들이 특별히 사리를 잘 알거나, 남다르게 동기를 부여받았다거나, 혹은 태도가 양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과 반원간의 관계를 결속시켰던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제 집에는 모조 은제 손잡이가 달린 검은색의 작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먼 친척분 소유였습니다. 60년이란 장시간 동안 제가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회 소년인 저는 와드의 성탄절 축하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는 3명의 동방 박사 가운데 한 사람 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긴 수건을 쓰고, 어깨 위로 어머니가 아끼시는 피아노 의자 덮개를 드리운 채 손에 검은 지팡이를 든 자세에서 제가 맡은 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복음 2:2) 그 축하 모임에서 했던 말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를 맡은 우리 세 사람이 눈을 위로 해 별을 쳐다본 뒤 무대를 가로질러가 아기 예수와 같이 있는 마리아를 발견하고는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보물 상자의 문을 열어 가져 간 선물인 황금과 유향 및 몰약을 드렸던 때의 감흥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우리들이 아기 예수를 배반하기 위해 사악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그 외의 길은 멀리했습니다.

세월은 유수वाद도 같았습니다. 분주한 생활 속의 사건들은 신성한 기억의 전당에 각기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

다만 예전의 그 성탄절 지팡이는 계속해서 제 집에서 특별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데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가정 생활에서는 세 가지 영향력이 어린이들에게 경건함을 일깨워 주고 그들의 영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것은 첫째, 엄격하지만 친절한 인도, 둘째 부모가 서로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보여 주는 예의, 셋째 자녀가 참여하는 기도입니다.”(임프루브먼트 이라, 1956년 12월, 915쪽)

구세주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부모와 신권 지도자로서, 어린이회 역원 및 교사로서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는 말씀에 유의할 때, 어린이회 소년 소녀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꽃피어나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누가복음 2:52) 질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구세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따르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니파이삼서 17:23)고 강권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흘끗 보거나” “그냥 바라보거나” 혹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가끔씩 쳐다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 주목하십시오. 구세주는 어린이들을 보라(behold)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는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해야 하며, 거룩한 품성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그들의 참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

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신생아의 시끄러운 첫 울음 소리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설득력있는 간증은 없습니다.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탁받은 저희들은 거룩하고 숭고한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의 어린이들을 사랑, 신앙의 불꽃, 및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심으로 감싸 주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듯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경전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디서든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모세서 6:57)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기도할 것과 주 앞





에서 올바르게 생활”(교리와 성약 68:28)해야 하며,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모사이야서 4:15)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니파이이서 25:26)를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신명기 6:5)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구세주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네 자녀를 심히 평안하게 할 것이요”(니파이삼서 22:13)

평안! 이것이야말로 저희 자녀들의 영혼에 주어지는 참으로 놀랍고 소망스러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들을 위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에 좀더 잘 대처하고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를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와 교사는 자신들이 단순히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공과와 모임 및 활동은 이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분께는 다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교회 회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봉사 역시 개개인 모두에게로 자유롭고 충만하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미셸린 피 그래스리 자매 본부 어린이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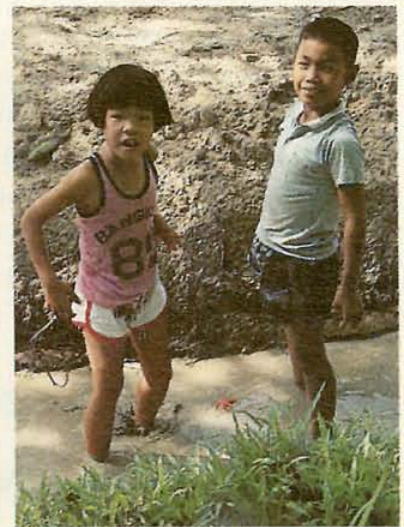
자녀들을 이해하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들은 즐거움과 자생적인 활력,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는 호기심, 무한해 보이는 듯한 신앙심의 소유자입니다. 종종 저는 실의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어린이를 찾아 잠시 같이 놀아 주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실 것입니다.” 라고 제언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보기에 자녀들과 가장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녀들이 크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녀의 연령에 맞게 그들을 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참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인지, 또한 자신이

가장 열망하는 꿈이 실현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찾게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복제되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비록 그것이 여러분의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적절한 관심사와 재능에 격려를 보내 주십시오. 자녀의 진정한 자아를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귀기울이십시오. 때때로 우리들은 자녀를 통제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시간을 못냅니다. 좀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좀더 우리 말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경청함으로써 무언의 메시지를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난 다음 이를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은 경험 부족 하나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친절하십시오. 제일 친한 친구나 좋아하는 선생님, 이웃, 혹은 친척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냐고 물어 볼 때면 언제나 자녀들은 “그가(그 분이) 저한테 잘 해주(시)거든요.” 라고 대개는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친절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린이의 부모나 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일의 항목에 친절을 첨가시켜 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예를 들면, 친절한 눈짓이나 온화한 접촉 등과 같이 간단한 것으로써 어린이에게 친절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잘못을 고쳐 주는 순간에도 친절한 음성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교정해 주어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간증을 자녀와 함께 나

누십시오…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면 자녀는 여러분한테 아주 소중한 어떤 것을 충분히 나눌 만큼 그들을 아낀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 원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 즉 생활의 표준이나 힐라맨의 표현을 빈다면 “그 위에 세움을 입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토대”(힐라맨서 5:12 참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이를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시간과 인내 및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과 생각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녀의 삶을 축복하게 되고 자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





아버지, 고맙습니다

줄리안 다이크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침실 하나만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나는 거실의 소파 위에서 잠을 잤다.

나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운동 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일은 다했다. 어떤 조인은 의문이 가는 것들도 있었으나 어쨌든 도움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를 실행에 옮겼다. 초코렛을 먹지 말라는 충고를 받고는 먹지 않았다. 소다수는 “정력을 소모시키므로”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소다수는 한번도 마시지 않았다. 또한 신선한 공기가 가득 들어오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나는 일년 내내 창문을 열어 둔 채 잤다.

철강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매일 아주 일찍 출근을 했다. 아침마다 아버지는 내가 열어 놓은 거실 창문을 살며시 닫고는 내게 이불을 덮어 주고 난 다음 잠시 멈춰서 계시고는 했다. 나는 비몽 사몽간에 종종 아버지가 소파 곁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육감으로 느꼈다. 잠을 자는 척하고 있노라면 아버지는 머리를 숙이고 나를 위해 온 정성과 힘, 그리고 주의를 다해 조용히 기도를 드리시고는 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내가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미래를 위해 배우고 준비하도록 간구드렸다. 저녁이 되기까지 나와 줄곧 같이 게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

루 동안 나와 함께 있게 될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렸다.

중·고등학교 때 나는 운동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시켰다. 미식 축구와 야구를 하게 된 것이다. 미식 축구 경기는 대개는 금요일 저녁에 가졌다. 당시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면 언제나 퇴근을 해 내가 치르는 매 경기에 오시기 위해 6~7시간이나 차를 몰고 오셨다. 한번도 경기 시작 시간에 맞춰 도착하신 적은 없으나, 코치 선생님은 아버지를 위해 입구 쪽 선수 대기석 옆에 앉을 수 있는 표를 남겨 두셨다. 나는 전반전 중에 위를 보면 아버지께서 사이드 라인에서 나를 바라보시곤 하던 일을 기억한다. 그런 다음 일요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는 차를 몰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시고는 했다.

처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날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간구 하셨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었다. 하지만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은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그로부터 수년 뒤 결혼을 해 내 자신의 자녀를 갖게 되고,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방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하셨는지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

함께 짜여지는

아넬리스 프렌트-펠리스

지 에코 엔 오까자끼 자매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삶은 우정과 친절이라는 성스러운 형태로 함께 짜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엔사인, 1993년 5월호, 84쪽 참조)

네덜란드 틸버그에 있는 고향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두 선교사들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내 나이 열다섯 살 때의 일이었다. 부모님은 이 두 젊은이에게 매료되어 선교사들이 나를 교회에 데려가도 좋은지 묻자 이를 허락하셨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교회와 선교사 토론을 통해서 나는 곧 참된 복음을 찾게 되었다. 생활이 바뀌었으며, 나는 부모님께 침례받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다. 그분들은 이를 거절하셨으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다.

이 무렵 나는 나보다 연상인 안스라는 아가씨와 친하게 되었다. 후일 그녀는 내게 자신이 진리를 찾던 중이었으며 나의 열의에 감명을 받아 교회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가 다른 마을에 살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자주 연락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나는 나중에 그녀가 교회에 입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같은 기간 동안 나는 친구 안젤라를 독신 성인 캠프에 데려갔다. 이 일은 그녀에게 교회의 구도자가 되겠다는 확신을 심어 줬고, 몇 달 뒤 그녀는 침례를 받았다. 지금은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없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을 취했고 우정 또한 계속되었다.

불행스럽게도 안스와 안젤라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난 뒤 나의 생활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나는 도르트레흐트로 이사갔고,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져 침례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안스와 안젤라는 나와 계속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회피했으나, 내가 의문이 있을 때는 도움을 주었다. 신앙 자체를 잃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는 여전히 내 양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때 안스가 내가 사

는 곳 가까이로 이사를 왔고, 우리의 우정은 꽃을 피워나갔다. 그녀는 종종 날 찾아와 나에게 대한 사랑을 다소 미묘한 방법으로 표현했다.

지금 나는 훌륭한 남편과 결혼을 해 아름다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약 일년 전 공공 도서관에서 우연히 교회사에 관한 책을 한권 발견하고는 나는 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개척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한 그 책의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기꺼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나갔던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간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교회가 참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내 친구들에게 침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놀라움은 대단했다. 침례 후 안스와 나는 많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안젤라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었으나 나는 그녀의 지지와 격려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크나큰 감사를 드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은 함께 어우러져 갔으며, 그 모습은 언제나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나는 오까자끼 자매님의 다음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한다.

교회에 대한 나의 구도는 15년간이나 계속됐다. 처음에 나한테 복음을 가르쳤던 선교사들은 내 간증이 시들해지는 것을 보고 낙담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내게 해준 일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람이 많았다. 그들이 뿌려 준 씨앗을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 결국 그들은 씨앗이 기쁨으로 개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신앙과 사랑으로 한데 어우러지기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 씨앗을 키워 나갔던 것이다. □

위: 친구 안스와 함께 있는 아넬리스 프렌트-펠리스 자매, **가운데:** 침례받기 전, 남편 르네 및 자녀들인 토미 및 키롤라라 함께 찍은 사진, **아래:** 자녀들과 함께 찍은 좀더 최근의 사진.

인 생



9 조지 크러번 가족 그룹을 제외했음





네 자신을 단련시키거라

칼 피터슨

나의 할아버지 로우즈는 심장병으로 몹시 편찮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살피며 드리는 것을 도와 드리기 위해 서로 순번을 정해서 할아버지 댁에서 돌아가면서 잠을 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고모님들이 가장 자주 방문을 하셨는데 한 주는 내가 할아버지 곁에서 밤을 지낼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침대 곁에서 의자에 몸을 비스듬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날 저녁 잠을 굳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막 잠이 들려 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뒤척이며 돌아 누우시고는 “칼, 네 자신을 단련시키거라.”하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돌아누우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네 자신을 단련시키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의도하신 것을 밤새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내려 하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할아버지의 등을 문질러 드리려 할아버지 댁으로 다시 갔습니다. 등을 문질러 드리는 것을 끝내고 앉아 나는 할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칼, 할아버지는 네가 주님을 위해 선교 사업을 하려는 소망을 갖도록 기도하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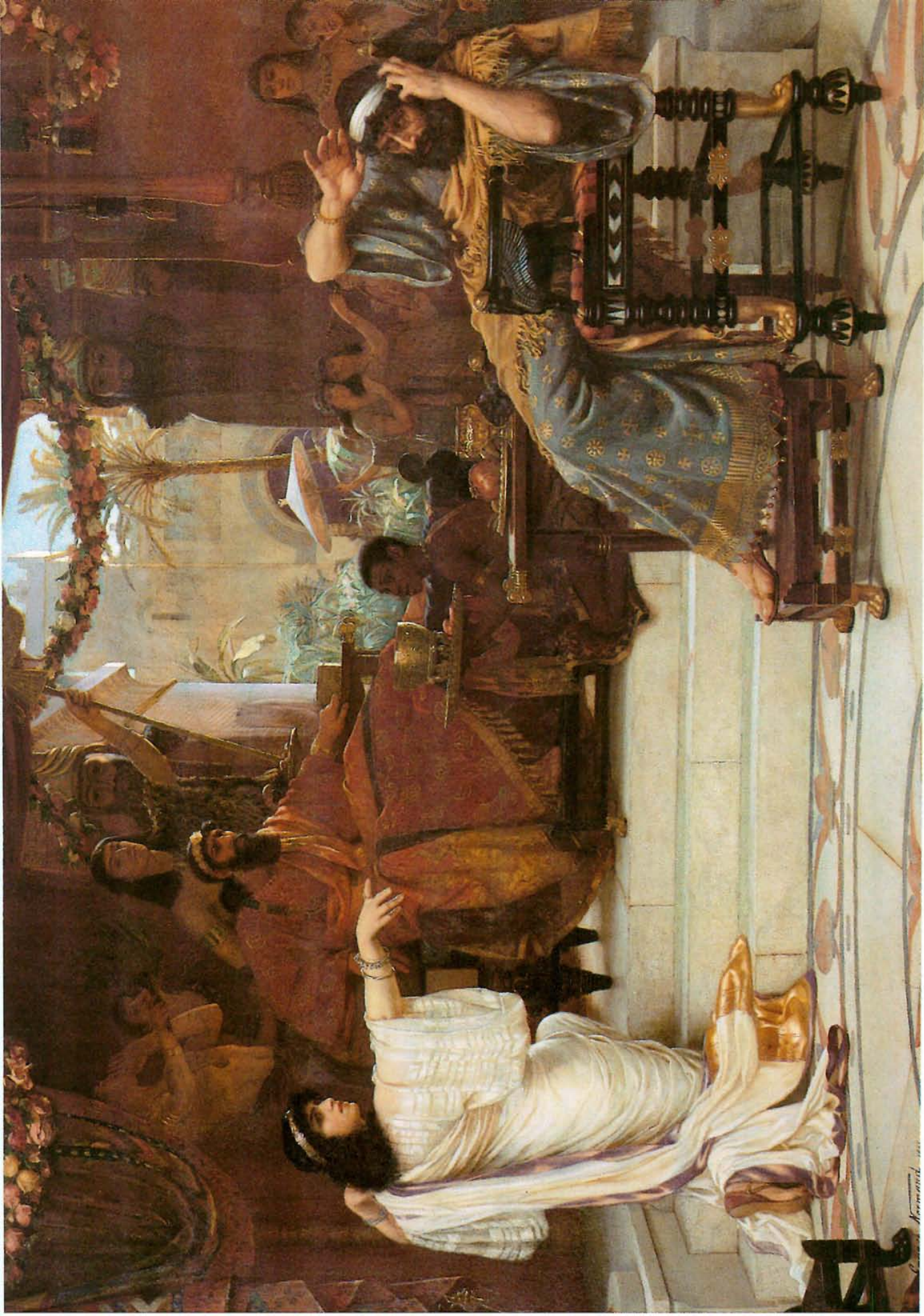
나는 그날 저녁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코치가 나에게 집중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머니와 나는 대화와 내가 내려야 할 결정에 너무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운동 연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체육 장학금을 받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길과 선교사로서의 길 두 가지 기로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할아버지가 “칼, 네 자신을 단련시키거라.”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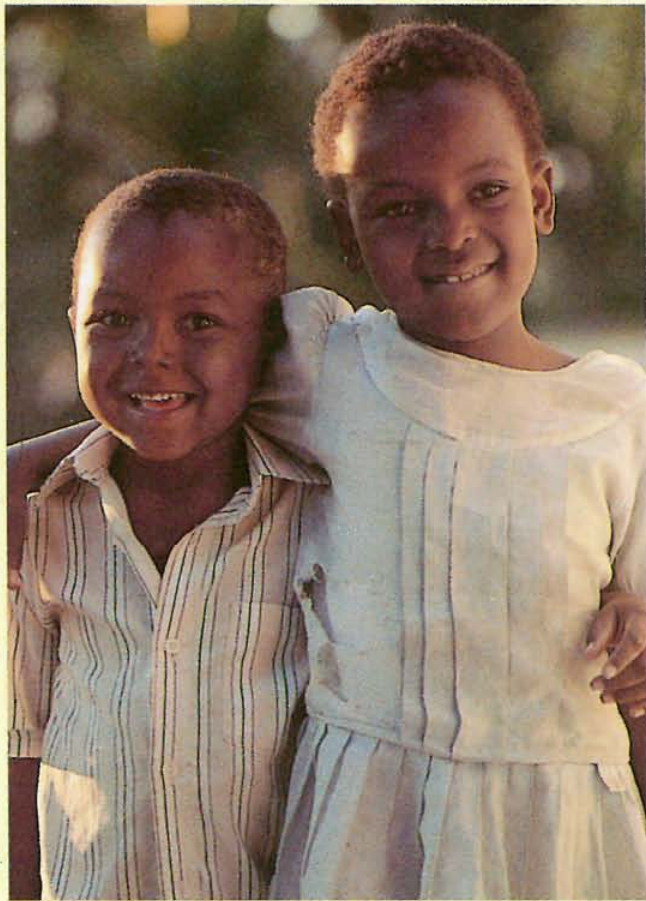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우선 순위가 진정으로 바르게 정해져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우선 순위가 운동에 있지, 주님과 그의 사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할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은 교회와 세미나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예언자 모로나이의 권고에 따라 물몬경과 요셉 스미스에 관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려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허미를 나무러는 에스더, 그림 : 에네스트 노마드

페르시아 왕 아히수메로의 총리 대신의 허미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허미는 왕을 수여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왕명을 얻어 냈다. 왕은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혈통을 왕에게 밝히고 허미의 계란을 나무러었다.(에스더 7장 참조)



어린이들은... 사랑의 정수입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고통의 세상에서
희망과 기쁨의 정수입니다.” 라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1994년 1월 교회의
위성 방송을 통해 말하였다.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35쪽 참조.(사진 촬영:리셀 디 홀트)